

위기의 광주 시민운동

시민단체 중견인사들 잇따라 공공기관행 젊은 활동가도 없어 감시·견제 부실 우려

광주 시민단체가 중대한 한계와 도전에 부딪혔다.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중견 인사들은 감시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줄줄이 옮겨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젊은 활동가들은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공무원 사관학교'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김영집 전 참여자치21 대표는 최근 광주시 시민특보 공모에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특보는 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불거진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의 소리 대표이사·사회적기업 미디어연구소 대표 등을 역임한 이상걸 전 광주시 일자리종합센터장도 지난 26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옛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선임원장은 강운태 시장 선거캠프 경제참모로 활동한 바 있다.

이경률 전 전남민주주의청년연합 의장과 김재석 전 광주경찰청 사무처장은 지난 2011년 광주시 인권담당관과 광주시 남구 감사담당관으로 옮겼다.

이들은 광주의 각종 현안과 자치단체의 실패사이에 대해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맡아왔던 대표적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보내는 지역민들이 많다. 감시 대상 기관으로 옮기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변절 논란'을 넘어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도.

당장, 내부에서조차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배가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감시를 할 수 있겠나"는 것 외에도 시민단체 활동이 자칫 제도권 진출을 위한 '발판' 또는 특정 공공기관의 '2중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공기관으로 다 가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회 분위기가 변화와 열악한 경제적 여건 속에 시민단체에 몸 담으려는

젊은 시민운동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견 인사들의 부재가 산·후배 간 소통 단절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존재한다.

물론, 행정기관에 진출해 시민단체와 가교역할을 하면서 충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으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경률 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운동 인사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적절한 인물이 행정기관에 가서 시민단체에 힘을 줄 수도 있다. (시민단체와의) 가교역할만 잘 한다면 플러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운동가는 "현재로서는 시민단체가 새로운 역할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떠나더라도 남아 있는 운동가들과 소통하면서 상호협력하면 좋는데, 실상 자기 자신만 권력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일 대구시장'으로 나선 강운태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매일신문=우태욱기자woo@msnet.co.kr



김범일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광주시청 입구에서 '1일 광주시장' 근무를 환영하는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jeans@kwangju.co.kr

광주-대구시 WBC 공동 유치

강운태·김범일시장 1일 교류 근무 '달빛동맹' 강화... 12개사업 협약식

영·호남 대표도시인 광주와 대구가 2017년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공동 유치를 추진하는 등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양 도시는 민선 5기 들어 추진해온 '달빛동맹' 사업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 잇단 잡음(광주일보 3월 5일자 1면)에 휩싸인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상호협력 차원을 넘어서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은 27일 상대도시에서 근무하는 '1일 교류근무'에 앞서 경남 함양읍 상림공원 앞 카페에서 만나 양 도시간 교류협력 협약을 가졌다. 이날 교류협력 협약식은 '달구미'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따 '달빛동맹 공동 아젠다'로 이름 붙였다.

5개 분야 12개 사업이 담긴 달빛동맹 공동 아젠다는 ▲군·공항 조이기 전 추진 ▲2017년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공동유치 ▲88고속도로 조기확장 ▲대구~광주간 내륙철도 건설 ▲미래형 치과벨트 구축 ▲3D 융합산업 육성 ▲국립과학관굴·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도시는 민선 5기 들어 추진해온 '달빛동맹' 사업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 잇단 잡음(광주일보 3월 5일자 1면)에 휩싸인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상호협력 차원을 넘어서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은 27일 상대도시에서 근무하는 '1일 교류근무'에 앞서 경남 함양읍 상림공원 앞 카페에서 만나 양 도시간 교류협력 협약을 가졌다. 이날 교류협력 협약식은 '달구미'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따 '달빛동맹 공동 아젠다'로 이름 붙였다.

5개 분야 12개 사업이 담긴 달빛동맹 공동 아젠다는 ▲군·공항 조이기 전 추진 ▲2017년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공동유치 ▲88고속도로 조기확장 ▲대구~광주간 내륙철도 건설 ▲미래형 치과벨트 구축 ▲3D 융합산업 육성 ▲국립과학관굴·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종합계획 수립 ▲시민·청소년·공무원 교류확대 등이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광주와 대구가 연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현 우리나라의 경제비율은 수도권과 남부권이 7대3으로 편중돼 있는 만큼 이를 최소 5대5로 맞춰야 한다"면서 "대구 언론이나 시민들도 지방분권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또 "영호남의 통합을 위해 양 지역 대표 야구도시인 광주(KIA 타이거즈)와 대구(삼성라이온즈)지역

중·중·고·대학팀이 맞붙는 야구대회를 개최하면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WBC 야구대회의 공동 개최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1일 광주시장으로 나선 김범일 대구시장은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제안하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5·18 기념식과 2·28 대구학생민주운동 기념식이 양 도시 시장이 교차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이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대구·경북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첫 참석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박진표기자lucky@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수입 농산물 판매대 철거

호남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광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수입 농산물을 전시·판매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7일자 1면)과 관련 해당 센터는 곧바로 수입 농산물 판매대를 철거했다.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계자는 "27일 중국산 콩나물과 숙주나물 및 완두콩 등을 판매대에서 치우고 국산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가공되지 않는 등 원형이 유지된 수입농산물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입산 취급에 따른 문제 제기를 경계하 받아들이며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수출기업 10곳중 6곳 "환율하락 피해"

광주상의 100곳 조사...대부분 "대체없어 출혈수출"

최근 환율하락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수출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환차손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 없이 '출혈수출'이 계속되고 있어 환율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8면>

27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내놓은 '환율하락에 따른 예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주(89개) 및

전남(11개)지역 수출 제조업체 10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원·달러, 원·엔 환율 하락이 지역 수출기업의 체산성과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83개)의 92.7%는 환율 하락으로 '피해가 발생'(59%)했거나 '피해가 예상'(33.7%)된다고 응답했다. '달라진 영향 없음', '수입단가 하

락으로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은 각각 4.8%와 2.4%에 그쳤다.

피해 유형별로는 기수출계약 물량의 환차손 발생(40.3%), 원화환산 매출액 감소로 체산성 악화(37.8%), 수출물량 감소(14.3%), 수출계약 차질(5%), 외화대출자금 이차부담 증가(2.5%)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94.7%)이 대기업(71.4%)보다 환율 하락에 따른 예로가 더 크다고 응답했다. 환율하락에 따른 대비책으로 환변

동보험 활용(15.3%), 대금결제 시기 조정(8.5%), 결제통화 변경(3.4%) 등의 적극적인 환율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7.2%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은 원가절감을 통한 체산성 향상(25.4%), 수출시장 다변화노력(11.9%) 등 환회피의 당기 대응과는 거리가 있는 대책을 꼽았다.

'대책 수립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16.9%나 있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로는 전문인력과 정보 부족(56.5%), 비용부담(26.1%), 거래규모가 작아 피해가 미미(13.1%) 등을 들었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해피니스CC 회원모집

●모집기간: 2012년 12월 5일부터 ~ 2013년 3월 31일까지

●클럽유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라리 1219번지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651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4차) - 모집인원: 5명

- ▶입회금액: 3억3,000만원
- ▶회원특전
 - 공동-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4회 주말부킹보장(1회), 골프텔개장시 할인혜택
 - 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평일부킹권 부여
 - 선택: A형, B형 중 선택(1)
 - A형)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 그린피면제 (1일 1회 사용)
 - 무기명카드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20회 사용, 1일 1회 사용)
 - B형) 정회원 동반2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1일 1회 사용)
 - 무기명카드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365회 사용, 1일 1회 사용)

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11명

- ▶입회금액: 1억 1,000만원
- ▶회원특전
 - 공동: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개장시 할인 혜택
 - 선택: C형, D형 중 선택(1)
 - C형) 무기명 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45회 사용, 1일 1회)
 - D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5명

- ▶입회금액: 2억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그린피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 1회)

중중/평일 회원 - 모집인원: 46명

- ▶입회금액: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

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5명

- ▶입회금액: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

은행명	광주은행
계좌번호	001-127-012066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비고	계약금 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 계약시: 정회원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환전시: 모든 특선
* VIP·휴먼·중중·해피 정회원은 클럽원 임의예매율 80% 보장(선용유동금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제요청한 회원 초상권 추첨에 참여할 수 없음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

품격이 있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끼워넣기 없는 정확한 티·오프 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해피니스 회원권 하나로 3개의 골프장을 즐겨라!"

경기에 정산컨트리클럽
상호 업무제휴 협약(상호 준회원대우)

제주 아델빌 리조트 앤 골프클럽
상호 업무제휴 협약(상호 준회원대우)

제휴를 통한 회원혜택!!

300구좌중 잔여26구좌분양 마감임박!!

* 예약신청은 소속 골프장 예약실에 신청 접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예약실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조건은 골프장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자: 2012년 12월 5일 부터